



교수건을 달고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학교 울타리 밖을 나가보지 못했던 저에게 “이제는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라”는 충고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지내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을 때가 가장 나답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사로서 남은 날들을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꿈꾸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끝까지 평교사로 아이들 곁에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달라지더라도 바뀌지 않는 행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큰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곁에는 비슷한 꿈을 꾸는 선생님들이 항상 많이 계셔서 지금까지는 참 행복하게 교사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교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교육활동은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그 학교에서 해왔던 활동들이 지속되지 않는 현실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직경력 35년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좋은 전통은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교장이 된다면 그 일이 더욱 넓게, 그리고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면서 교장공모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평교사였지만 학교의 교육력과 행정력을 학생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적극성과 추진력을 지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오랜 교육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여럿이서 함께 꿈꾸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해갈 수 있는 지혜를 지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 운 좋게도 지금까지의 교육활동을 인정받아 “제 2회 대한민국 스승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고, 학교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때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 항상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길이 안보이면 스스로 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고맙게도 아이들은 제게 ‘학교엄마’란 과분한 별칭을 남겨주며 행복하게 이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00지역에서 성적과 행동면에서 최하위권의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로 소문이 나있던 학교였습니다. 저는 30년 교직생활의 대부분을 00지역에서 보냈기에 이 학교를 이렇게 규정짓는 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인사이드동 때 이 학교를 희망하여 모이자고 의논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학교이었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AVENGERS4”가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학년 부장이 되어 3년간의 로드맵을 짜고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00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여 몇천만원이 든다는 학교 담벼락의 벽화를 아이들과 함께 700만원에 멋지게 그려내었고, 각종 행사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활동(부채만들기, 목도리뜨기, 여름실내복, 겨울내의)을 하는 등, 마을의 중심학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였고 급기야 2018년에는 00시 행복마을학교 사업 중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 마을축제까지도 학생회중심으로 훌륭하게 치룰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마을사람들의 칭찬에 힘든줄도 모르고 하냥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임하고 4년이 지난 후, 이제 이 학교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1년 단위로 선생님들이 바뀌는 학교가 아닙니다. 1년 반에 걸친 **공간혁신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공간의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BTL학교**이어서 공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잠재력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때론, 차별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자라온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설계하고 계획하기를 1년! 드디어 학교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회사측의 허락을 얻을 수 있었고 급기야 **10억원**의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학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다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다면 이젠 삶의 연륜이 묻어있는 어머니의 손길로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않은 않겠지만 쓰러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 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아이들의 인생을 완제품으로 완성해서 안겨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을 꿈꿉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태양의 이야기처럼 학교에서 자신이 주인이면서도 나그네처럼, 서성이는 아이들의 추운 마음을 녹여 자기 인생의 행복한 설계자가 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가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제2의 가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따뜻한 기억으로, 정글 같다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도우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중 30년의 교직 생활을 하였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가겠다는 저를 말리는 동료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초.중.고를 이 지역에서 지낸 저이기에, 오랜 타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마음과 지난 35년의 교직생활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를 이곳 **곤양고등학교**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두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보다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수의 감소와 작은 학교이어서 힘든 곤양고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게 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지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2021. 06.02.

소 속 : ○ ○ 고등학교

직 위 : 교사

성 명 : ○ ○ ○ (인)